

강진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2025년 12월31일까지 시행
관내 사업소 579대 농기계 대상
감면을 기존 동일 임대료 50%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기대

강진군이 경기 침체와 농산물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

이는 강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에 따른 결정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임대료 감면은 관내 본소 및 각 지역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한 579대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료의 50%이다.

본소에는 215대, 칠량분점 100대, 도암분점 128대, 작천분점 136대의 임대 농기계가 마련돼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관련 읍·면과 실·과·소에 협조를 요청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감면 연장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강진군은 논콩재배 확대정책에 따라 콩재배 관련 콩콤바인 2대, 콩파종기 4대, 콩정선기 2대 등 8대를 사업비 3억3300만원을 확보해 2025년 추가 구입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군동본소(061-430-3675), 칠량분점(061-430-3678), 도암분점(061-430-3690), 작천분점(061-430-36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결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가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 구축 영암군-영암교육지원청 협약

영암군은 지난 23일 영암교육지원청과 '영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암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실내체육 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영암군은 영암초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해 지역주민은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학생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교육부, 전남교육청 등에서 예산을 마련해 오는 2028년 2월 완공을 목표로 198억원 규모로 수영장(5레인), 다목적 체육관, 돌봄 및 방과후 교실, 미래교육재단 및 평생교육 공간 등을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현대적 복합시설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학교복합시설로 학생을 포함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세우겠다"며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

해남군, 청년 공공일자리 접수 내년 1월8일까지 78명 모집

해남군은 내년 1월8일까지 2025년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78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남형 청년 공공일자리사업은 청년층에게 공공기관에서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업무능력을 키우고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발된 참여자는 군청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에 배치돼 근무한다.

참여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주민등록세대 기준 재산이 4억원 미만인 청년이다.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모집기간 중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은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 사업에 참여한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시급 1만 30원의 임금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 간식비(5000원)가 추가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해남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2025년 행복기숙사 입사생 모집 영암군미래교육재단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이 2025년 행복기숙사 입사생을 내년 1월16일까지 모집한다.

30일 영암군에 따르면 행복기숙사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양질의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전국 곳곳에 건립·운영 중이다.

영암군미래교육재단에서 이번에 선발·지원하는 입사생은 총 35명으로, 선발된 대학생은 재단이 교부하는 합격증을 수령해 주거를 희망하는 행복기숙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각 행복기숙사에서 최종 입주 대학생생을 결정하면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이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올해 영암군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행복기숙사 이용 관련 협약을 맺은 후 첫 행복기숙사 입사생을 모집하는 만큼 이번 공고에 많은 접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복기숙사 입사생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과 영암군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영암=한교진 기자



신안군 관계자들이 마을 보호수를 전정하고 있다. 최근 신안군은 관내 10개소의 보호수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마을 보호수 정비

신안군이 관내 10개소의 보호수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보호수의 건강과 주변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보호수의 부후균 제거를 위한 외과수술, 위험 가지 제거, 주변 잡목 정리 등을 진행했다.

현재 신안군 내에는 팽나무 96그루, 소

나무 7그루, 느티나무 5그루 등 총 117그루의 보호수와 수령이 오래된 당산목, 풍치목, 정자목 등 28그루의 노거수가 관리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예로부터 마을 앞 거목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였다. 그 마을의 역사를 다 보고 있는 어르신 같은 존재로 우리 곁을 지켰다"며

"그 역사 속의 나무를 이제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재산으로 군민들의 변함없는 습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보호수와 노거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7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1004섬 보호수 이야기' I·II와 '1004섬 당산나무 이야기'를 발간해 문화적 가치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

진도군, 2026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

국토부 등 10개 부처 29건

진도군이 지난 27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6년도 국고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를 통해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총 10개 부처, 총사업비 5조4574억원 규모의 29개 사업을 발굴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농수산업 환경 변화, 문화예술, 관광산업 등 진도군이 당면한 현안과 지역적 특성, 보유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진도군의 건의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 후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부서 간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전남·중앙부처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국비 확보를 제고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올해 응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공모사업을 분석해 내년 응모계획과 사전 준비 절차를 점검하고 실행력과 완성도를 높



지난 27일 진도군이 2026년도 국고 건의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진도군 제공

이는 방안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진도군은 올해 초부터 2026년도 국고 건의사업 발굴을 위해 사전이행 절차 이행 등 실행력이 높은 사업계획 수립과 용역 시행, 관련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등 선제적인 업무를 추진하며 준비해 왔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2026년에도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국비 확보는 물론, 공모사업에 총력을 다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해 70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135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올해는 4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1080억원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2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공모사업을 포함한 국·도비 이전수입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035억원, 올해 2363억원 등이다.

진도=백재현 기자

공공예금 이자 수입 89억원 성과 신안군, 세수 확충 도움

신안군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올해 89억원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국내 내수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둔 성과여서 더욱 의미 있다는 것이 신안군의 설명이다.

지난해 공공예금 이자 수입 48억원보다 약 41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충해 재정 건전성도 확보했다.

신안군은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감소를 예측, 실시간 계좌 모니터링을 통한 예금 분산 예치와 장·중·단기 순환방식을 적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신안군은 내년에도 정기예금의 기간과 이자율 비교, 단기 이자 수입 확보에 효과적인 수시 입출금계좌(MMDA) 개설하는 등 군 자금 여건에 맞는 최적의 장·중·단기 예금상품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 세입·세출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주·월별 자금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보통예금의 유휴 자금을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열악한 군 재정 살림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방식을 강구해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